

결핵약에 의한 시신경 독성

결핵은 주로 결핵균(Mycobacterium Tuberculosis)이라는 세균이 호흡기를 통해서 몸 안으로 흡입되어 발병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.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핵균에 효과가 높은 결핵약제들로 치료를 해야합니다. 결핵균은 증식이 매우 느리고 일부 결핵균이 죽지 않고 다시 증식할 수 있으므로 결핵약제 조합(1차 치료제들)들로 최소 6개월이상 규칙적인 복용이 필수적입니다. 그러나, 결핵 1차치료에 중요한 에탐부톨(Ethambutol)을 포함한 몇몇 약제들이 시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, 결핵약제들을 장기간 복용할 때에 눈 독성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시신경 독성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결핵 치료에 약제중에서 시신경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들에는 에탐부톨(Ethambutol), 이소니아지드(Isoniazid, INH), 리팜핀(Rifampin), 리네졸리드(Linezolid) 등이 있습니다. 그 중 가장 흔한 약제가 에탐부톨이란 약이고 나머지 약제들은 드물게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결핵약에 의한 시신경 독성은 대부분 에탐부톨 복용 후 나타나는 빈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에탐부톨 시신경병증에 대하여 조금 더 알려 드립니다.

- 에탐부톨 시신경병증

에탐부톨은 1차 치료약제이고 시신경 독성은 투여 후 2-7개월에 주로 발생할 수 있지만, 드물게는 1개월에서 2-3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눈 증상으로는 양안의 통증 없는 중심시력 저하가 특징이고 적색 및 녹색을 포함한 색각 저하가 대표적입니다. 여러 보고에 의하면, 환자의 약 1.5%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, 약제가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기능이 나쁘거나, 당뇨, 간손상 등이 있는 분들에게서 보다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눈증상이 시작되면, 복용을 중단하여도 3-4주간 증상이 지속될 수 있고 회복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,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약물 중단 외에는 특별한 치료 약제가 없으므로 빨리 발견하여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따라서, 에탐부톨을 포함하는 결핵약물 치료 중에 시력 및 색각 저하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안과에 방문하여 시력, 시야검사, 색각검사 등의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

도움글 주신 분 : 동아대 안과 류원열 교수